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묵상기도 다 같 이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 이

대표기도 가족 중 한 분

성경봉독 에베소서 6:1-4 다 같 이

- 1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 4 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나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가정 인 도 자

주기도문 다 같 이

축복과 비전나눔 다 같 이

※집안 어른들께서 지난 은혜를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정 안의 여러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복종은 권위에 대한 억압적 복종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는 아담을 돕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지만 동시에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돕는 자의 마음 안에 필요한 것은 공허함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힘껏 도우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 같이 연약한 아내를 살피고 보호하십시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잠잠히 묵상해 봅시다.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참된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 문이 열릴 것입니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찬 자녀들은 쉽게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처하는 회복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부모는 자녀들의 생애기 난 마음의 약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권면하고 훈계하십시오. 가정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눔과 축복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나누십시오.

기도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